

확장된 구조적 폭력과 투쟁의 (불)가능성

드라마 <무빙>을 중심으로

Extended Structural Violence and the (Im)possibility of Struggle
: Focusing on <Moving>

김민영*

국문요약 이 글은 드라마 <무빙>에 드러나는 구조적 폭력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가치없이 죽음정치를 펼치는 국가 시스템의 모순을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빙>에 등장하는 '한국형 슈퍼히어로'는 기존의 슈퍼히어로 서사와는 다르게 국가권력에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비-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오로지 이들의 초능력이 국가 권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만 내부자/외부자를 구분했다. 따라서 슈퍼히어로는 더 이상 불행한 삶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출한 능력의 여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방법으로 국가체제에 저항하며 새로운 정치적 사유의 가능성을 그려낸다. 국가에 의해 강요된 정체성에 따라 개인의 삶의 필요가 정해지고, 더 나아가 사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사회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무빙>은 가혹하고 비참한 사회를 전복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연대라는 것을 상상적인 내러티브로 보여줌으로써, 타락한 공권력에 저항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판타지 장르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무빙>, 슈퍼히어로, 구조적 폭력, 비-존재, 정치적 사유논리영역

차례

1. 서론
2. '비-존재'로 전락한 슈퍼히어로
3. (불)완전한 정치적 사건의 동역학
4. 결론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자연 법칙과 현실 원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것¹⁾을 의미하는 판타지는 여러 장르와 결합하며 다양한 외피를 갖게 된다. 그간 TV드라마가 사실적·현실적인 서사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판타지의 부각은 진부한 내러티브와 소재의 고갈에 난항을 겪던 제작 시스템에 신선한 돌파구가 되었다. 대중은 새로운 내러티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판타지가 상상적 '지금-여기'를 그려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환한다. 이는 판타지가 대중의 욕망을 재현하는데 적절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므로, 판타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대 대중의 무의식적 징후를 발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1. 서론

2010년 이후 멜로, 역사 등의 장르가 주류를 이루었던 TV드라마 자장에 판타지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비롯해 초능력을 지닌 존재 및 상상의 존재

1 백경선,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판타지의 유형과 의의」,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를 환유하다』, 소명출판, 2020, 17쪽.

판타지의 여러 구성요소 중 ‘초능력’을 가진 인물은 일상적인 시공간에 머물며 대중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등장한다.² 그중에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요하는 수사드라마와 판타지의 결합은 무능한 공권력 대신에 초월적 힘을 지닌 영웅(슈퍼히어로)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극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특수한 힘을 가진 수사관이 현재 한국 사회의 병폐, 즉 정치·자본 권력의 총건이 되어 국민을 외면하는 타락한 공권력, 유전무죄를 입증하는 무능한 사법 시스템 등을 누설하고 사회악을 단죄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판타지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현실의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을 해소하고 싶은 대중의 원망(願望)이 발현된 것이다. 문제는 이때의 악을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된 사회적 약자 혹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를 범죄자(악인)로 호명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이나 악마 등으로 타자화시킴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고착화된 극적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³ 이에 수사관은 초능력이라는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혐오, 불안 등의 정동이 만연하고 국가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체제에서도 정의 구현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진정으로 분노해야 하는 ‘구조적 폭력’과 시스템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일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전사(前事)보다는 그가 사회악을 처단하는 활약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무빙〉⁴은 앞서 살펴본 판타지에서 그리고 있는 슈퍼히어로 서사⁵, 즉 초능력이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보

조히는 이야기와 다른 변별점을 갖는다.⁶ 일반적으로 한국 TV드라마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슈퍼히어로’보다는 ‘초능력자’, ‘영웅’이라 지칭하는 편이 익숙하다. 슈퍼히어로는 “총기를 소유한 미국사회, 거기다 자경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들”⁷의 이야기를 다루며 할리우드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한국에서 슈퍼히어로는 ‘미국 슈퍼히어로, 일본의 특수촬영, 중국의 무협, 한국의 고전 영웅서사’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한국형 슈퍼히어로’가 탄생한 후 꾸준히 성장·확장하고 있다.⁸

〈무빙〉의 슈퍼히어로들은 “각별하게 다른 특수한 힘”을 소유하고 “이타적이고 영웅적인 롤모델”의 면모를 지니며, 극 중에서 이들의 전사(前事)가 풍부하게 제공됨으로써 “공감 가능한 인간적”인 측면까지 가지고 있다.⁹ 표면적으로는 그들 또한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악을 처벌하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다(유지혜, 「‘무빙’ 강풀 “가족 지키는 부모가 우리의 진짜 ‘히어로’”, 『스포츠동아』, 2023.09.13.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912/121149339/3>) 최종검색 2024.08.24).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소방관, 의사, 교사 등 초인적인 능력을 갖지 못해도 타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스스로 희생을 마다않는 사람들 또한 ‘영웅’이라 부르기도 한다(제프 로엵, 『영웅과 슈퍼 히어로』,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 히어로, 미국을 말하다』, 잠, 2008, 32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super라는 접두사의 의미, 즉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슈퍼히어로’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 6 정지훈은 강풀의 웹툰 중 〈무빙〉의 세계관과 연관이 있는 작품을 통해 OTT 플랫폼에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무빙〉의 인물들이 ‘한국형 슈퍼 히어로’로서 갖는 정체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빙〉은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기에 슈퍼히어로 서사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활약상 자체보다는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서사’에 가깝다고 평가한다(정지훈, 「OTT드라마 〈무빙〉의 세계관 구축 방식과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의미」, 『국제언어문학』 58, 국제언어학회, 2024, 395~413쪽). 필자는 선행연구에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보고는 〈무빙〉에서 재현되는 은폐된 악의 실체와 이에 희생된 슈퍼히어로 및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 반재원, 「초인은 어떤 식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가: 한국 슈퍼히어로물 대표 작가 반재원 인터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507호 - 슈퍼히어로는 한국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20, 43쪽.
- 8 김형식,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타난 빌런의 정치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40~41쪽.
- 9 손지상,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에 대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앞의 책, 30쪽.

- 2 김희경은 “현실 세계(특히 도시) 일반인과 초자연적 힘을 가진 선한 영웅이나 악마, 도인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밝힌다(김희경, 『판타지, 현대 도시를 걷다』, 스토리하우스, 2014, 89쪽).
- 3 권양현·김민영, 「한국 수사드라마의 전개와 장르적 특성 연구: ocn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95, 중앙어문학회, 2023, 358~364쪽.
- 4 각본 강풀, 연출 박인제·박윤서, 디즈니+, 2023.08.09~2023.09.20(총 20부작). 원작은 강풀 작가의 『무빙』이다. 웹툰에서 드라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작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작가가 직접 각본 작업을 했고 전체 서사와 주제는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드라마 〈무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5 작가 강풀은 “‘무빙’은 내 가족을 지키는 부모들이야말로 ‘한국형 히어로’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모든 엄마와 아빠들이 진짜 영웅이니까요.”라고

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귀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슈퍼히어로와 유사하지만, 캐릭터의 서사가 부족한 미국의 슈퍼히어로에 비해 주축 인물들의 개인 서사를 상세하게 녹여낸 덕분에¹⁰ “일상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한 비밀상을 수용”¹¹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삼아 남과 북이 ‘우리’에게는 슈퍼히어로이지만 ‘상대’에게는 악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 구조적 폭력을 일삼고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죽음정치를 펼치는 국가시스템이 진정한 악임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타의 텍스트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즉 국가 시스템의 비리와 병폐가 폭발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심해짐에 따라 당대 사회구성원이 슈퍼히어로 등장 of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¹²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키며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돕고 선한 힘으로 악을 물리”¹³치는 인물이 바로 슈퍼히어로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공권력이 각자도생을 외치며 더 이상 사회구성원을 지켜주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선한’ 슈퍼히어로는 ‘방어 능력이 없고’,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쳐나가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이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슈퍼히어로의 희생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다. 그들의 희생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초월적 힘이 도덕적이고 정의로롭게 발현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자신보다 공동체, 즉 ‘우리’를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희생은 사회구성원에게 송고하게 기억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무빙>의 슈퍼히어로에게 희생은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송고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국가 체제는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사회구성원에게 “보잘 것 없는 존재지만 특출난 존재(히어로)가 지닌 초월적인 능력과 선함에 의존한다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내고 위기에 처한 세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무의식”¹⁵을 투영하며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념의 차이로 인해 다른 길을 선택한 ‘북한’을 여전히 절대악이라 믿으며,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다. 즉, 국가는 슈퍼히어로가 “자본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치안의 수호자로서, 상상적인 방식으로 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수행”¹⁶하게 하여 지배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도구로서만 필요할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은 <무빙>에서 전경화하는 구조적 폭력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은폐된 사회 부조리와 모순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2. ‘비-존재’로 전락한 슈퍼히어로

한국전쟁은 약 70년 전에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그간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흔적을 남겼다.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전쟁의 흔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망령처럼 배회하며

10 강풀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충분히 묘사되어야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임수연, 「[인터뷰]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가 좋다, ‘무빙’ 강풀 작가」, 『씨네21』, 2023.10.12.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3635&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최종검색 2024.08.24.

11 손지상, 앞의 글, 같은 쪽.

12 한창완, 『슈퍼히어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vii쪽.

13 제프 로옌, 앞의 글, 30쪽.

14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스토리텔링』, 박이정, 2017, 62~63쪽.

15 김형식, 앞의 글, 54쪽.

16 위의 글, 57~58쪽.

사회구성원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좌/우파로 분열되어 혐오의 정동을 널리 퍼뜨리는 정치 권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흑백논리로 점철되어 교집합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신관계가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의 심연에 도사리고 있다.

K-콘텐츠에서도 한국전쟁은 빈번히 등장하기에 단순히 잊힌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한국 현대사의 모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모든 사회는 통치 권력이 이상적이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이 정해진다.¹⁷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사회는 이분법적 이념 체제에 의한 기준이 더욱 선명하게 구별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대외적으로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기준의 존재가 논의됐지만, 이면에서는 기존의 체제 유지를 위해 건전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삶을 구속하고 옥죄는 경우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과 갈등이 발생한다.¹⁸ <무빙>의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점을 자의든 타의든 숨긴 채 살아간다.¹⁹ 이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17회)²⁰ 존재임에도 남과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이유로 괴물이나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존재가치가 부각될 때는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만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소속일 때이다. 블랙요원으로 국가가 시키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스르는 순간 바로 적이 된다.

슈퍼히어로들은 그들의 초월적 힘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보다 그 힘을 언제,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즉 “선천적이고 숙명론적인 고결성”보다는 “힘이 발휘되는 순간에 그 도덕적 지향점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²¹지에 따라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악당이 될 수 있다. <무빙>의 슈퍼히어로들은 안기부 소속 하에 괴물이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목적은 결코 도덕적이라 할 수 없다. 한국과 다른 이념 체제를 지향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국민을 명분 없이 죽이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조리 적으로 간주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상당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신체 및 타인을 대하는 ‘정상적’ 태도, ‘옳은’ 태도가 무엇이나에 대한 견해가 각기 다르기 때문”²²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수장인 안기부 제5차장 민용준(문성근 분)은 ‘각기 다름’과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성과 차이,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 유지”²³될 때 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만이 정상이라는 불합리한 맹신을 내세우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개인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블랙요원에 대한 상식적인 예우조차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CIA가 보낸 프랭크(류승범 분)가 자신의 수하였던 진천 정상진(백현진 분), 봉평 전영석(최덕문 분), 나주 김국희(홍성화 분) 등을 암살하자, 민용준은 오직 슈퍼히어로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거래를 한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의 죽음 앞에 어떠한 애도의 과정도 없었다. 때로는 청와대도 모르게 국가 기밀을 운용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소불위 시절 안기부

17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반비, 2015, 232쪽.

18 세르주 티스롱, 정재곤 역, 『가족의 비밀』, 궁리출판, 2005, 213쪽.

19 <무빙>의 등장인물 중에 조래혁(유승목 분)은 일반 사람보다 수탐 능력이 뛰어나 민용준에게 발탁되지만, 이는 슈퍼히어로, 즉 블랙 요원으로 활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20 이는 <무빙>의 17회에서 나온 대사이며, 대사는 디즈니플러스의 자막을 참고하였다. 이후 대사를 직접 인용할 때는 회차만을 밝히겠다.

21 이현중, 앞의 책, 62쪽.

22 파울 페르하에허, 앞의 책, 36쪽.

23 위의 책, 235쪽.

의 “살아있는 물증”(5회)이므로 민용준에게 구세대 슈퍼히어로로는 결코 가시화되면 안 되는 존재였다. 현재의 안위만이 그의 관심사이고 “옛날이 좋았다”(1회)며 절대적 권력을 군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민용준이 구세대 슈퍼히어로의 죽음에 동요되지 않았던 이유는 NTDP(국가재능육성사업, National Talent Development Project) 사업을 통해 구세대 슈퍼히어로의 능력이 유전된 자식 세대를 양성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찾으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세대는 “비-존재”가 되어 안기부의 보호에서 벗어난 외부자, 즉 “빈곤과 주변화 영역”²⁴으로 내몰린다.

한국 정부(국가)는 블랙 요원으로 활약했던 그들의 희생을 기려주는 커녕,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無)’로 산정하여,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리²⁵, 다시 말해 “비-존재”²⁶로 전락시켜 버린다. 이로써 정부는 “생존과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지배 질서를 영속 세계 안에 갇히게”²⁷ 하여, 슈퍼히어로를 위협천만만 곳으로 내몰아 세운 무자비한 주체, 즉 “죽음정치”²⁸의 주체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한국 정부(국가)는 구조적 폭력을 자행하는 진정한 악의 주체임이 드러난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할 때, 지속적이고도 완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인간적인 것이 그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인 것으로 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오래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자들과 서서히 죽어가도록 분류된 자들 사이

에는 계속 변화하는, 그리고 다양한 곳에 위치한 경계가 있는 것이지요. (중략) 문제는 인간이 그 존재가 허물어지는 가능성에의 노출을 포함해 사회에 의해 위치된 자신의 자리와 사회가 자신에게 할당한 것으로서의 인간성 외부로 벗어나게 되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²⁹

위의 글에 따르면 안기부라는 영역을 벗어난 슈퍼히어로는 “근간을 잃어버리고, 점령당하고, 가정과 사회적 유대가 파괴”³⁰된, 불안정한 영역에 놓이게 된다. 김두식(조인성 분)은 비행 능력을 가진 최정에 블랙 요원으로, 파트너인 장주원(류승용 분)과 중차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용준은 자신의 지시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 김두식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한다. 김두식이 다른 수하들과는 달리 종종 자신의 임무가 비도덕적임을 인지하고 국가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용준은 김두식의 유일한 실패가 이미현(한효주 분)과 함께 했던 임무라는 점을 약점 삼아, 이 둘을 “짜구려 휴머니즘”(9회)이라고 조롱하며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장주원도 예외가 아니다. 회복능력이 탁월하고 괴력을 소유해서 괴물이라 불리던 장주원은 안기부에 채용되기 전에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초능력 덕분에 안기부 내부로 편입이 가능했지만, 국정원으로 개편되면서 블랙 요원이 아닌 장주원의 쓸모는 사라진다. 기본적인 서류 업무 처리조차 미숙하지만 공무원 임대 주택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국정원에 계속 몸담고 있는 것밖에 없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다시 그의 가치를 드러내며 재편성된 블랙의 리더가 되지만, 민용준은 여전히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이재만(김성균 분)은 장주원에 뒤지지 않는 괴력을 소유

24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이신철 역, 『미래가능성』, 에코리브르, 2021, 157쪽.

25 알랭 바디우, 이승재 역,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자음과모음, 2016, 45~46쪽.

26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나타나시오우, 김응산 역,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2016, 44쪽.

27 김형식, 앞의 글, 55쪽.

28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158쪽. 브라이도티는 ‘죽음정치’가 아실 음벰베(Mbembe, Achille, 2003. Necropolitics. Public Culture.)의 주장에서 언급된 용어라 밝히고 있다.

2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나타나시오우, 앞의 책, 60~61쪽.

30 위의 책, 34쪽.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요원이 되지 못한다. 그의 서사를 보여주는 14회의 부제가 ‘바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정상적 범주에 소속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민용준: 경찰에 넘겨, 저런 건 쓸모없어. 말도 제대로 못 하지, 지능도 한참 떨어진 걸 데려다 무슨 일을 시키겠어? 괜한 시간 뺏겼네.(14회)

민용준은 이제만의 능력은 탐나지만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려 한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강훈(김도훈 분)에게 능력이 유전됐다는 것을 알고 타깃을 이강훈으로 바꾼다. 이에 정원고 교장이자 국정원 소속인 조래혁은 오직 NTDP 성과를 위해 이강훈에게 이제만의 전과를 없애주는 대가로 정원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종용한다. “범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는 행위”³¹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민용준으로 대변되는 국가는 가족을 볼모삼아 슈퍼히어로의 권리를 앗아가는 악랄한 약탈자와 다를 바 없다. 슈퍼히어로 또한 국가의 안전망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구성원이지만,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슈퍼히어로라는 쓸모의 여부로 인간을 판단하며 철저하게 ‘죽음정치’를 실행에 옮긴다.

인간을 ‘차별적으로 할당’하는 모습은 NTDP 사업이 진행되는 정원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예 요원인 김두식의 능력을 유전받은 김봉석(이정하 분)을 중심으로 통학권을 구성한 정원고는 전술한 대로 슈퍼히어로의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TDP는 수탐이 뛰어난 조래혁이 구세대 능력을 이어받은 자식들을 찾

아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한 극비 프로젝트이다. 문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라는 외피 속에 국가 이데올로기의 일그러진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정원고 학생과 학부모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점,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버림받는 다수의 학생이 생긴다는 점이다.

국정원 소속 최일환(김희원 분)은 민용준의 지시에 따라 정원고의 불온한 실체를 숨긴 채, ‘체대 입시준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블랙 요원의 자질을 검증한다. 구세대 자식들을 비롯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능력 여부를 테스트하지만, 적합한 블랙 요원을 발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반 학생인 방기수는 우월한 신체능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는 그저 예비 요원으로 확정된 이강훈을 괴롭히는 문제아일 뿐이다. 봉평의 아들인 전계도(차태현 분)는 봉평의 능력, 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유전받았지만 블랙 요원으로 활약하기에는 부족했기에 학교는 그를 “폐기 가능한 존재이자 아무 쓸모 없는 존재”³²로 평가내린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테스트로 그의 쓸모를 판단당했어도, 전계도는 “모두에게 필요없는 사람”(6회)이라 여기며 실패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시킨다.

이상과 같이 <무빙>의 슈퍼히어로는 국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로 ‘내부자/외부자’로 판단된다. 구세대 슈퍼히어로는 내부자의 삶이 “관계성을 통제하고 전유하는 권위주의적이고도 종종 가부장적인 기체로서 작동”³³함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장희수N: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다. 아빠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이사를 다녔다. (중략) 어디에도 정

31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반비, 2016, 105쪽.

32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나타나시오우, 앞의 책, 55쪽.

33 위의 글, 34쪽.

착하지 않았다. 아빠는 일용직이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셨다. (중략) 아빠는 탄광 노동자가 되어 직장을 갖게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학다니지 않아도 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중략) 아빠는 작은 집을 샀다. 아빠 혼자 나를 키우며 10년 넘게 하루하루 일용직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4천 번의 일용직이었다. (5회, 밑줄은 인용자)

장주원은 장희수(고윤정 분)에게 자신의 초능력이 유전됐다는 것을 민용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의 안정적인 삶과 혜택을 미련없이 버린다. 김두식과 이미현 또한 아들 김봉석에게 초능력이 유전됐다는 것을 인지한 후, 김봉석이 철저하게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반역자와 다름 없다. 국가의 떳떳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던 이들은 “일상적 일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개인의 자율성을 수호”³⁴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들은 외부에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될까 봐 늘상 불안해하며 “어디에도 정착하지” (5회) 않고 “실존하지 않는” “비실존자”³⁵로 살아간다.

이는 김두식 실종 이후 이미현이 단독으로 김봉석을 보육하는 시기에 더욱 강박적으로 작용한다. 김봉석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날이 선 엄마를 위해 유전받은 능력을 비밀에 부친 채 성장한다. 이미현은 남편 김두식을 행방불명으로 만들고 김봉석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민용준에게 자신의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 김봉석에게 김두식과 초능력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김봉석의 안전을 위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개 어른들은 아이에게는 뭔가를 충분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의 비밀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지해내곤 한다. (중략) 사실상 자녀는 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상징화 과정에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자녀는 부모를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그만큼 부모의 비밀에 대해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비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안게 되며 이는 장차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⁶

이와 같은 비밀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기에 김봉석은 매일 차고 다니는 모래주머니처럼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즉 이미현의 의도와 정반대로 비밀은 김봉석에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처로 새겨지게 된다. 김봉석이 김두식처럼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국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미현은 김봉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오로지 비밀이 발각되지 않은 삶만을 강요했던 것이다. “엄마의 부양으로 나는 부양하지 않았다” (2회)라는 김봉석의 내레이션은 이미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스스로 초능력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석과 장희수의 만남은 김봉석에게 하나의 ‘사건’이 된다. “사건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관안으로 끌어들이며, 주체를 열어젖히고 예측 상태에서 해방”³⁷시키며, “새로운 존재의 구도를 탄생시킴으로써 기존의 확실성을 파괴”하며 “지배 권력의 전복”³⁸이 발생한다는 한병철의 의견을 따르면, 이 만남은 김봉석에게 그

36 “부모가 고통스럽거나 곤혹스런 상태에서 비밀을 유지하게 될 때 자녀는 부모의 고통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녀 스스로 그 고통의 책임을 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까닭에 부모의 비밀은 아이에게 커다란 정신적 부담을 안겨 준다.”(세르주 티스통, 앞의 책, 73쪽)

37 한병철, 김태환 역,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문학과지성사, 2015, 108쪽.

38 위의 책, 109쪽.

34 프랑코 '비포' 베라리디, 앞의 책, 2016, 200쪽.

35 알랭 바디우, 박성훈 역,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 도서출판 길, 2022, 73쪽.

간 외부세계에 노출한 적 없는 자신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고 자신의 초능력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된다. 김봉석은 '비-존재'로 전략한 부모 세대와 다르게 각성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는 “저항의 행위로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나 “이동하기를 거부하기”³⁹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초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괴물 혹은 이방인으로서 할당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존재를 내보이는 것은 그에게 온당하게 부과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3. (불)완전한 정치적 사건의 동역학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 안기부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음지’에서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과거 수사 관행이 고스란히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다. 그렇기에 좌천됐다가 ‘국정원’으로 다시 돌아온 민용준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권세를 누렸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국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안기부 고위간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려 한다.

정체성은 이해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인식한) 한계다. 물론 정체성이 쓸모 있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이를 정통성이나 원초적인 소속의 조건이라고 이해하려 든다면 위험하다. 정체성은 상호 공격성의 조건, 인종주의와 폭력, 그리고 파시즘의 조건이다. 정체성은 근원에 대한 비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소속을 진리의 기준이자 선택의 기준으로 소환해낸다.⁴⁰ (밀줄은 인용자)

위의 비포의 의견에 의하면, 민용준은 절대 악으로 여기는 ‘북’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과거 안기부 소속의 정체성을 다시 소환하여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당위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안기부 시절 사용하던 명패를 그대로 사용하며, 블랙 요원들을 소집하고, 김두식의 행방을 찾기 위해 좌천된 조래혁을 불러낸다. 더 나아가 NTDP에 이강훈을 합류시키기 위해 아버지 이재만을 볼모 삼는다. 이는 이강훈을 빛의 사슬로 묶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착취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수단이자, 대응할 능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이다.⁴¹ 이재만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유는 그의 전과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별감시 때문이다. 감시를 받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지만, 이재만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국가의 감시망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를 알 수 없던 이강훈은 이재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괴물들이 지키는 유한하고 폐쇄적인 공간”⁴²인 국가체제에 스스로 들어간다. 이처럼 민용준은 슈퍼히어로에게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정체성의 인식처에 대한 필요, 소속 확인의 필요”⁴³를 강화하고 봉인하려 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북의 수뇌부까지 뚫고 침범한 김두식 때문에 북한의 보위부장(손병호 분)은 “남에 있으면 북에도 있어야 한다”(18회)며 초능력을 가진 인민, 즉 “특수기력자”(15회)를 발굴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선발과정을 거친다. 다수의 잠재기력자 중에서 소수의 특수기력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인민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희생은 당연하다는 상부의 지시대로 김덕윤(박희순 분)은 두려워하는 대상자들을 강제로 훈련에 동원하여 죽음의 기로로 몰아세운다.

41 위의 책, 180쪽.

4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57쪽.

43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앞의 책, 2016, 155쪽.

3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나타나시오우, 앞의 책, 48쪽.

40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앞의 책, 2016, 154쪽.

장준화: 함께 훈련받았던 동무들이 죽었습니다. 호위 총국원 선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저 호위 총국원 돼서 가족들 배부르게 먹여 살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김덕윤: 살고 싶은가? 최고 인민 전사만이 살 길이다.

장준화: 난 최고 인민 전사 되고 싶지 않아. 이걸 훈련이 아니
오. 우린 몇 번째입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어 나
간 겁니까!

김덕윤: 개죽음은 아니지. 훈련 중에 죽은 군인은 전사자가 된다. 공화국의 예우가 따른다.

장준화: 예우? 난 기만 거 필요 없고, 그저 살고 싶을 뿐이오.

김덕윤: 지금 이대로 가면 동무는 변절자가 된다. 변절자는 총살이야. 변절자가 되면 니 가족은 어쩔 거니?(18회, 밑줄은 인용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죽임을 당해도 전사자로 국가에 소속되는 예우를 누릴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김덕윤의 설득은 승자만을 위한 논리이다. 이는 북한의 “권력이 살인 전문가 군대들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폭력은 불가능(무능)을 병리학적으로 증명”⁴⁴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남한에 맞설 수 있는 특수기력자 발탁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여전히 과거 지배체제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희생당한 잠재기력자들은 북한에 득이 되지 않는 생명, 방치된 생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의 죽음에 애도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특수기력자 관련 임무를 통솔하는 김덕윤은 김두식 때문에 죄없이 죽은 동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있지만, 특수기력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압적인 희생에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따르는 북한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군사정권의 체제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내부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아울러 그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것에 다를 바 없기 때

문이다. 즉 남북 모두 사회구성원의 안위보다 기존 이데올로기를 지속하기 위한 국가제체 유지가 최우선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민족의 안녕과 화합이라는 대전제를 공통적이지만, 진정 ‘안녕’한 상황은 소수의 상부계급일 뿐이고 다수의 사회구성원은 국가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김덕윤: 흉수를 척살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린 자 말입니다. (중략)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50년이나 반복된 일입니다. 공화국이 김신조를 보냈고 남조선이 김두식을 보냈습니다. 공화국이 그 과정에서 애꿎은 인민들만 수없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보위부장: 그 언사 책임질 수 있어? 한 치 혀가 널 반동으로 만드는 거 알디? 잊지 말라. 희생은 불가피하다.

김덕윤: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20회)

그렇기에 김덕윤은 사회구성원의 이유없는 희생을 막고 극단적인 적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혼돈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남한에서 슈퍼히어로 관련자를 모두 죽이라는 상부 명령을 거역하고 저항한다. 냉전 시대 이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행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남한에서도 김두식이 단독 행동으로 비행기 추락을 막으려 하거나, 이중 스파이를 차단하는 작전에서 김두식과 이미현은 경질을 각오하고 무고한 희생을 막는 등 부당한 상부 지시에 각자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전술한 대로 자신과 같은 삶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 비실존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혁명이란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일상

44 프랑코 베라르디[비포], 유충현 역, 『봉기』, 갈무리, 2012, 139쪽.

의 종식⁴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쓸모에 따라 생명의 경중을 나누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앗아간 죽음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독재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지고 있⁴⁶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면 이 사회는 폭발⁴⁷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슈퍼히어로의 행위는 “비실존자가 지닌 실존의 강도가 극적으로 변동하여 최대의 실존값을 얻게 되는 사태⁴⁸인 ‘정치적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실존자로서 불안정한 외부의 영역으로 내몰리던 남북의 슈퍼히어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위해 저항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특수기력자는 남한의 차세대 슈퍼히어로 양성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따라서라도 ‘살기 위해서’, 남한의 슈퍼히어로는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원고에서 마주한다. 정원고는 진술한 대로 북한과 미국에서 암암리에 시행되는 슈퍼히어로 발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작동하던 정원고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 투입될 슈퍼히어로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가장 잘 맞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곳이다. 이 공간이 남북의 충돌과정에서 립재석(김중희 분)의 박수 몇 번에 부서지고 무너져버린다. “혁명적 폭력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변형시키고 그기능방식과 토대와의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⁴⁹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충돌은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빌런이다. 하지만 ‘적’이라는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적대적 관계는 불분명해

지고 폐기된다. 진정한 빌런은 국민의 안전보다 체제 유지와 이데올로기의 절대적인 믿음을 강요한 국가 시스템이다. 남북 서로를 주적으로 겨누며 전쟁이라는 비극의 시간까지 경험해야 했고, 현재까지도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희생을 초래하는 국가체제가 악의 화신인 것이다.

마지막회에서 카메라는 버즈아이뷰(bird's-eye view)로 북한에서 특수기력자 선발과정에서 죽은 인민들, 김덕윤을 포함해서 임무 수행을 위해 남한으로 같이 온 동료들의 죽은 모습을 담아낸다. 카메라는 압도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이들의 숙명을 보여주기 위해, 이 죽음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마치 박제된 듯 삶의 시간이 멈춘 이들을 훑는다. 이는 김덕윤의 바람처럼 다시는 반복되는 안 되는 현실임을 시사하고, “근본적인 혁명 속에서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오래된 꿈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꿈꾸는 방식 자체를 다시 창안⁵⁰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민용준을 비롯해서 국가시스템에 복종한 이들도 문제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적’이란 “그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은 적 없는 사람⁵¹이라면, 슈퍼히어로의 개인적 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국가 시스템이 진정한 적이자악이라 할 수 있다.

〈무빙〉은 ‘지금-여기’가 진정한 정치적 사건으로 성공적인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⁵² 이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2회)이라고 김봉석에게 말하는 이미현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0 위의 책, 16쪽.

51 위의 책, 80쪽.

52 “‘무빙’의 히어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극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공감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공감이다.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을 날고 재생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그런 능력보다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 아닌가 싶다.”(양소영, 『인터뷰』 ‘무빙’ 강풀 작가 첫 북문 도전, 가장 중요한 건 재미였죠”, 『스타투데이』, 2023.09.05. <https://www.mk.co.kr/news/broadcasting-service/10822234>) 최종검색: 2024.08.30.

45 앙리르페브르, 박정자역, 『현대세계의일상성』, 기파랑, 2005, 277쪽.

46 위의 책, 같은 곳.

47 위의 책, 278쪽.

48 김형식, 앞의 글, 244쪽.

49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17쪽.

다 큰 아이를 업고 다니던 자신을 위로해준 정육점 사장님 덕분에 이미현은 김봉석을 부양하며 살아갈 동력을 얻고, 청계천에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장주원과 이재만은 힘을 합친다. 김봉석과 장희수는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더 나아가 김봉석은 각성한 후 존재감 없이 소심한 성격을 탈피하고 무능한 국가체제에 저항하며 저항의 구심점으로 변모한다. 평생을 적대관계로 주입당하며 살아온 김덕윤, 장준화(양동근 분)와 김두식은 가족을 위해 공감하며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전계도는 정원과 프로젝트에서는 탈락했지만 김봉석을 구하기 위해 번개맨으로 영웅적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권용득(박광재 분)이 친우인 림재석의 죽음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토닥여주던 장희수의 작은 손길은 남다른 초능력보다 따뜻한 위로와 마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적 새로운 사유는 기대하지 않았던 동맹,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동맹”, “평등한 만남 속에서”⁵³만 발생할 수 있다. 장준화는 부하의 죽음보다 남한 파견의 성과가 더 중요한 보위부장을 척결하고, 김두식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던 슈퍼히어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민용준을 사살한다. 장주원 또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래혁을 찾아 응징하고, 최일환으로부터 NTDP 파일을 건네받는다. 이로써 남북의 정치적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남북의 비열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민용준과 보위부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한국의 경우는 마상구가 민용준을 대신한다.) 채울 것이기에, 정치적 사건으로써 혁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덕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바랐던 새롭게 변화된 시대의 도래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유를 시도한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밀하지만 굳건한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가능성의 지평이 확대된 것이라 읽을 수 있겠다.

4. 결론

〈무빙〉은 그간 SF장르에서 부각됐던 ‘비-존재’를 슈퍼히어로에 적용하여 기존의 판타지와 다른 내러티브를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체제의 안정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무빙〉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배경 삼아 슈퍼히어로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죽음정치로 매몰된 국가권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안녕과 화합을 추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지배 권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불합리한 처사를 행했다. 즉 슈퍼히어로는 선천적으로 초능력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삶이 아닌 국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삶을 희생해야 했다. 이에 슈퍼히어로는 필요와 쓸모에 의해 가족을 해체하며 고통스러운 사회구성원을 외면하고 자본 혹은 정치권력과 이익으로 결탁하는 국가에 저항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답게 가족 및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그동안 적으로 간주하고 마주하지 않았던 남북의 입장에 공감하며 새로운 정치적 사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인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국가로 대표되는 타자가 통제하는 사회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북의 정치적 사건의 추동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안내해준다. 김봉석은 국가권력의 주변/외부에 놓인 ‘비-존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장주원과 장희수는 갈 길을 잃은 권용득을 가족으로 편입시킨다. 최일환은 국정원 소속을 벗고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미래를 꿈꾸는 선생의 길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무빙〉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정한 국가권력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애쓰는 사회구성원을 결코 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상적인 내러티브를 보여줌으로써, 타락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저항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53 알랭바디우, 앞의 책, 2016, 92쪽.

하고 판타지 장르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각본강풀, 연출박인제·박운서, 디즈니+, 2023.08.09~2023.09.20(총20부작).

2. 단행본 및 논문

권양현·김민영, 「한국 수사드라마의 전개와 장르적 특성 연구: ocn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95, 중앙어문학회, 2023.

김형식,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타난 빌런의 정치성 연구」, 중앙대 국문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김희경, 『판타지, 현대도시를 걷다』, 스토리하우스, 2014.

로지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히어로, 미국을 말하다』, 잠, 2008.

세르주티스롱, 정재곤 역, 『가족의 비밀』, 궁리출판, 2005.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알랭바디우, 이승재 역,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자음과모음, 2016.

알랭바디우, 박성훈 역,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 도서출판 길, 2022.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스토리텔링』, 박이정, 2017.

정치훈, 「OTT드라마〈무빙〉의 세계관 구축 방식과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의의」, 『국제언어문학』 58, 국제언어문학회, 2024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나타나시오우, 김응산 역,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2016.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를 환유하다』, 소명출판, 2020.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반비, 2015.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유충현 역, 『봉기』, 갈무리, 2012.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반비, 2016.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이신철 역, 『미래가능성』, 에코리브르, 2021.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507호: 슈퍼히어로는 한국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20.

한병철, 김태환 역, 『심리정: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문학과지성사, 2015.

한창완, 『슈퍼히어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3. 기타자료

양소영, 「[인터뷰] ‘무빙’ 강풀 작가 “첫 극본 도전, 가장 중요한 건 재미였죠”」, 『스타투데이』, 2023.09.05. <https://www.mk.co.kr/news/broadcasting-service/10822234>

유지혜, 「‘무빙’ 강풀 “가족 지키는 부모가 우리의 진짜 ‘히어로’”」, 『스포츠동아』, 2023.09.13.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912/121149339/3>

임수연, 「[인터뷰]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가 좋다, ‘무빙’ 강풀 작가」, 『씨네21』, 2023.10.12.

Abstract**Extended Structural Violence and the (Im)possibility
of Struggle**

Focusing on <Moving>

Kim, Min-Yeong | Hannam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ad the contradictions of a state system that relentlessly enforces a politics of death by examining the patterns of structural violence in the OTT drama <Moving>. Unlike conventional superhero narratives, the 'Korean superhero' in <Moving> is forced to become a 'non-being' while sacrificing himself unilaterally to state power. The state distinguished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solely by whether their superpowers could be used for state power. Thus, superheroes are no longer judged by their extraordinary abilities, but by their ability to become ordinary members of society, to resist the state system in their own way, to prevent unhappy lives from being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o envision new possibilities for political motivations. A society in which an individual's life needs are determined by a state-imposed identity, and furthermore, a society that controls the lives of others for profit, is a terrible thing. <Moving> is significa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fantasy genre by showing through an imaginative narrative that it is the empathy and solidarity of the members of a society that can overthrow a harsh and miserable society, offering the possibility of resisting corrupt authorities.

Keywords Moving, superhero, structural violence, non-being, political motivations